현장시선

세계평화의 섬 제주, 평화도시를 꿈꾼다

이 신 선
서귀포YWCA사무총장

통일을 향한 꿈, 한 번씩은 생각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한반도 통일의 꿈 VS 전쟁' 이렇게 대조 해보면 누구나 통일의 기분 좋은 꿈을 선택할 것이다. 특히 전쟁소식을 전해들을 때면 더 그렇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10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국내 실향민과 난민이 발생했다. 주변국을 포함해 각 나라에서는 제재를 통해 전쟁을 종식해보고자 했지만, 전쟁을 치르는 두 나라를 넘어 공간적으로 확대되고, 에너지문제 등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크고 작은 일들로 평화에 대한 갈망이 더 크게 다가온다. 한반도의 휴전이 종전이 되면 어떨까.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휴전을 끝내고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에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평화감수성이 가장 높은 제주도민이 돼보면 어떨까. 하는 고민과 숙제를 던져본다.

제주도는 2005년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됐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라는 상징성을 가지려면 그 가치가 브랜드화 돼야 하는데, 여전히 부족함을 느낀다. 세계서 가장 국제 외교활동이 활발한 곳인 제네바를 보면서, 제주가 국제도시와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살려 평화를 주제로 한 국제회의, 국제기구가 집결돼 평화의 섬으로의 가치를 상승시켜 보는 것을 제안한다. 많은 국제회의가 열리고 제주도민들이 그에 걸 맞는 평화감수성을 갖추고 평화를 논하는 장소로 제주가 선택됐으면 한다. 그 중심에 한반도평화가 이야기되고, 의제로 다뤄지기 시작한다면 평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YWCA세계 총회가 열려 참석했을 당시, 한국 YWCA는 북한 어린이를 돕자는 결의문을 상정해 발표했다. '북한보다 아프리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프리카는 반대를 했지만, 결의문이 통과돼 세계YWCA가 북한의 굶는 '인민'들을 향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어 스위스총회에서, 우리나라의 분단 상황을 알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UNSCR) 1325호를 들어 탈북여성과 아동들이 성착취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했고, 한반도 분단과 평화체제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져 압도적 지지를 받고 결의문이 통과됐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국제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된다면 한반도평화에 대한 이슈를 좀 더 가깝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홍콩에 있던 아시아태평양 YMCA연맹 본부가 제주로 이전이 결정돼 얼마 전 착공식을 마쳤다. 하나둘 국제기구가 제주에 모이고 국제평화기구의 제주이전을 유치해 평화의 중심도시로서 거듭난다면 제네바처럼 제주도도 국제평화의 섬으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민, 더 나아가 전 세계인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꿈을 제주에서 가져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

사전 내정해놓고 공모, 이게 정상인가

6·1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주요 기관장에 '누가 간다'는 등 인사 얘기가 무성하게 나돌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의 내정설이 파다한 것이다. 제주시장은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현직 법조인 K씨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또 서귀포시장은 기초의원 출신 L씨가 오르내렸다. 공모를 거쳐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대로 내정설이 사실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그제 민선8기 첫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 후보자를 발표했다. 정무부지사에 김희현 전 제주도의원이 낙점을 받았다. 제주시장은 강병삼 변호사, 서귀포시장은 이종우 전 남제주군의원이 지명됐다. 특히 개방형직위인 행정시장은 시중의 풍문대로 인사가 그대로 이뤄졌다. 제주시장의 경우 내정설이 나돈 인사 외에 응모자가 없어 연장 공모까지 갔다. 결국 추가 응모자는 들러리만 선 셈이 됐다. 공모절차 없이 도지사가 바로 지명하는 정무부지사 역시 소문이 빗나가지 않았다.

오영훈 지사의 첫 인사부터 실망스럽다. 행정시장의 인사를 보면서 개방형직위에 대한 문제를 새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개방형직위 공모에 대해 얼마나 말이 많았는가. '짜여진 각본대로'니 '짜고 치는 고스톱'이니 '무늬만 공모'니 조롱거리가 된지 오래다. 공모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했기 때문이다. 내정 후 공모하는 것은 다른 응모자를 기만하는 것이요, 대도민 사기극이나 다름없다. 이러면 원희룡 도정과 다를게 뭐가 있는가. 앞으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의 공모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선거공신을 위한 '공모잔치'로는 유능한 인재를 모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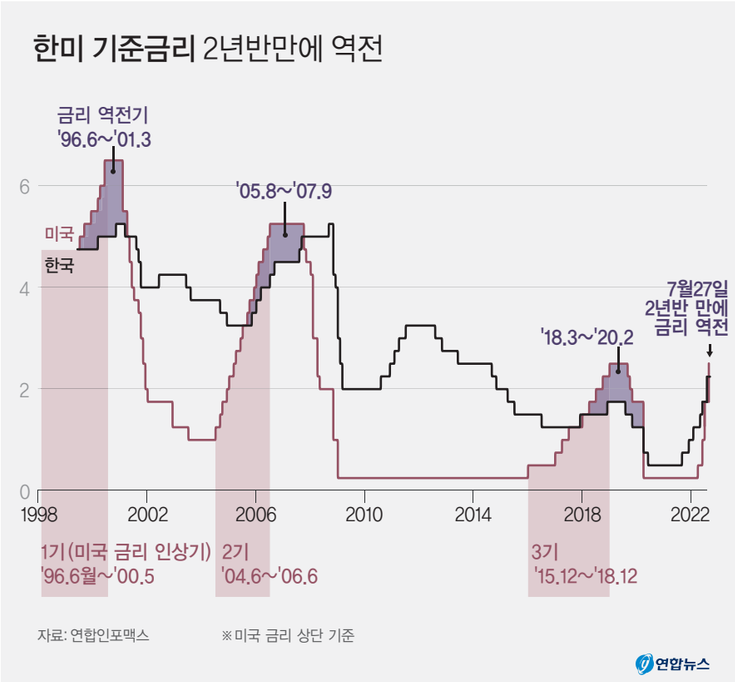
'천길 낭떠러지' 농업, 언제까지 둘 건가

농업이 갈수록 사방팔방 초유의 위기를 몰고오는 요인들 뿐이어서 회복불능의 파탄을 걱정할 상황이다. 농민 고령화, 수입개방, 농지감소 외에 비료·농약·기름값, 인건비 등 영농비 폭등 현실은 농민들 감당할 수준을 이미 넘었다. 농업계가 수없이 '비명'을 지르지만 정부와 지자체, 농협의 대응을 보면 비상한 대책이 아닌 '찔끔 대책'에 그쳐 효과를 못내는 형국이다.

농민들이 최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반대 회견에 나선 건 당연하다. 농업이 전례없는 위기를 겪는 판국에 농업 등 모든 상품에 100% 관세철폐를 하는 CPTPP 가입을 하는건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인력난, 농약 비료 면세유 가격폭등에 전대미문의 위기현실을 외면말라는 호소다. 농업의 위기는 통계상 가파른 농가변화에도 있다. 통계청 집계 결과 농가는 2020년 3만가구, 인구 8만명으로 1970년 5만5000가구, 24만8000명보다 무려 45%, 68%나 줄었다. 농가 경영주 연령은 70세 이상 30%, 60대 28%, 50대 26%인데 반해 40대 이하 비중은 1970년 61%서 2020년 16%로 급감했다.

제주농업 위기가 앞으로 더 고조된다는 우려도 문제다. 농정이 그간 각종 영농지원, 미래작물 개발 등에 나섰지만 성과를 찾기 힘든 현실이다. 도와 농협이 기존 영농시책들을 재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의 지원책 확대에 나서야 한다. 현 농업은 농민 삶마저 위태롭게 해 획기적 지원책만이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래픽 뉴스



열린마당

머리맡 베개 같은 고전(古典)

김 현 국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장

고전(古典)은 사전적 의미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높이 평가된 저술 또는 작품을 일컫기도 하고, 서양에선 2세기 이래 그리스·로마의 대표적 저술을 지칭하기도 한다. 인류 역사 이래 수많은 작품들이 쓰여지고 읽혀왔는데 시대를 뛰어넘어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이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책들이 읽을 만한 고전으로 거론되고 있을까? 문득 궁금해져서 서귀포시 도서관 사서들과 함께 작업해 봤다. 다양한 대학과 기관에서 추천하고 있는 고전들을 망라해 보고, 많이 언급되고 추천되는 책들 순으로 나열해 보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단순히 추천된 횟수의 나열이지 읽어야 하는 순서는 결코 아니다. 그 중에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은 한 권일 수도 있고 여러 권일 수도 있고, 전혀 없을 수도 있다.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칭찬하지만 읽지 않는 책'들이 아마 맞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은, 여러 곳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읽고 추천된 책이라는 것이고 읽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가을이 돼야 완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 주변에 있는 책꽂이에는 그런 책들이 반드시 한 권씩은 꽂혀 있을 것이다. 길고 긴 인생길 나침반으로 쓸만한 고전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못 읽으면 머리맡 베개로나 쓰지요.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라일보 제주의대표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건 일 편집국장 이 윤 형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부 고

강언식(現 제주경찰청 차장) 빙부 광산김공 정근(前 초등교사·향년 93세)께서 서기 2022년 7월 28일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2년 7월 31일(일요일)
▶발인일시: 2022년 8월 1일(월요일) 오전 7시 30분
▶빈 소: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제3분향실
▶장 지: 제주국립호국원

부 인 이충녀
아 들 김양하(故) 며느리 강명희
동하(故) 강애란
성익 황현주
성훈 강의숙
딸 김순실
금실 사 위 강언식
손 김준영 외 손 강동엽
철균 다은
대은
진우
소연
샘이
진희 친족대표 김용하

※ 연락처 : 김성훈 010-4653-2502
강언식 010-3280-2058
김용하 010-2761-6578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밀양박씨 영옥(향년 78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7월 29일

남 편 강성요
아 들 강덕창 며느리 이재연
딸 강혜선 사 위 이승진
혜숙 김동록
혜림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김해김씨 옥여(모니카·향년 9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머리 숙여 인사 올립니다.

2022년 7월 29일

딸 장재순 사 위 지순명
재춘 문경만
재화
재희 김용기
재옥 정기호
재숙 김상기
재칠 김성진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분성배공 광경(前 초등교장·향년 88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7월 29일

부 인 김방규
아 들 배종철 며느리 강애숙
군철 현은희
딸 배희순 사 위 김영철
선희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 성 명 : 망 김인영 (1953. 7. 5. 생)
• 최후주소 : 제주시 구좌읍 계룡길 42-14(한동리)

상기자는 2022년 5월 12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2년 7월 27일 제주지방법원 2022느단1027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 고 처 : 제주시 도령로 140, 501호 (연동, 삼무스위트빌)

2022년 7월 29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김 수 정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